이스트스프링 연금저축 코리아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5년 06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억 원

-모투자신탁 109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2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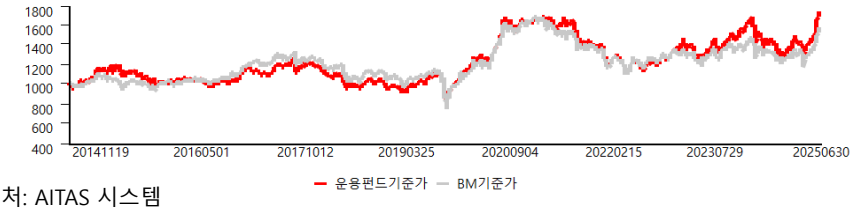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5.73%	27.32%	34.69%	4.68%	27.14%	42.06%	54.80%	71.25%
클래스 C	15.60%	26.88%	33.76%	3.11%	23.36%	35.81%	43.55%	45.65%
클래스 C-E	15.64%	27.01%	34.05%	3.59%	24.53%	37.73%	46.97%	34.68%
클래스 S-P2	15.66%	27.06%	34.15%	3.75%	24.90%	38.37%	48.16%	63.83%
벤치마크	13.86%	23.80%	28.01%	9.79%	19.79%	31.68%	45.69%	56.1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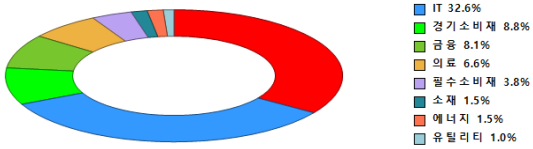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1.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9.9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4.0
삼양식품	음식료·담배	3.2
현대건설	건설	3.1

종목명	업종명	비중(%)
하이브	오락·문화	3.1
미래에셋증권	증권	3.1
NAVER	IT 서비스	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9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2.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이스트스프링 연금저축 코리아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5년 06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2 : 총 연 0.93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대비 13.86% 상승한 3,071.70pt, KOSDAQ은 6.42% 오른 781.5pt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협상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국내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조기 개입 등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경 기대감과 함께 신정부 주요 공약인 AI 고속도로,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이슈가 본격 논의되면서 인터넷, 플랫폼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전 투자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 역시 유틸리티 업종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1% 하락한 1,356.4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11% 상승한 65.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2조 7,37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 8,367억 원, 5,49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6월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관련된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에서는 지수의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대형주와 증권주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대응했습니다. 펀드에서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긍정적 주가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률에 부정적 기여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엔터투어, 증권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인터넷, 은행 업종과 보험 업종의 미보유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K2전차 수출 본격화로 인한 마진 개선가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현대로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양식품, 원가율 개선으로 인한 실적 개선과 원전 수주 기대감이 형성현대건설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SK스퀘어와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자본효율성 개선 기대감이 형성된 삼성생명의 미보유 효과와 새로운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우려로 조정받았던 한국전력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전월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이슈 재부각,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 등 대외적 요인 또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및 내수 부양책 등 정책에 관한 기대는 여전히 작용하며 증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하반기 및 2026년 이익 모멘텀에 기반한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근거 없는 상승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밸류업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번 강세장의 근간이라 판단합니다.

기존 주도주만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섹터들의 주도주와의 갭 메우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인덱스 수급이 유입되게 되면 대형주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을 기존의 주도주를 매도해야 할 시그널로 보기 보다는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되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관점에서 저 PBR 업종 및 종목을 선별해 비중을 구축해 주도주가 쉬는 국면에서 수익률을 방어할 생각입니다. 기존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는 이유는 수주 및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실적 시즌에는 다시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수의 상승 가능성과 밸류업의 관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주 중 저 PBR 구간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확보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변동성과 순환매 국면에서도 기본적인 밸류에 집중해 종목을 선별해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5-06-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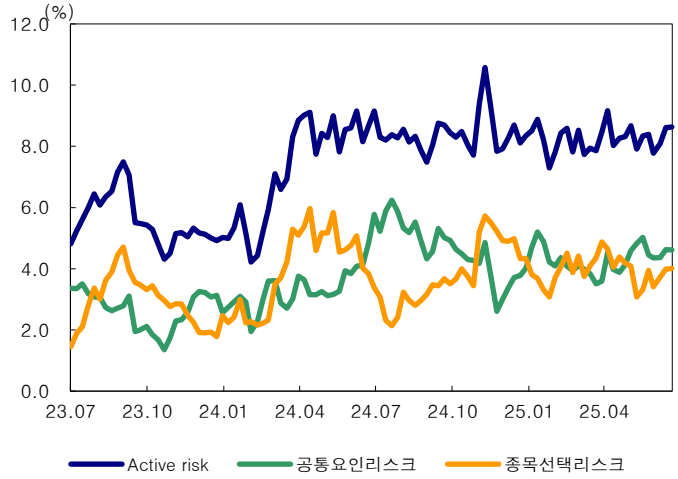
	2025-06-30	2025-05-30
Active Risk [1]	8.71%	8.39%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5.03%	4.45%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3.29%	2.57%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74%	1.8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3.67%	3.94%
베타	1.09	0.91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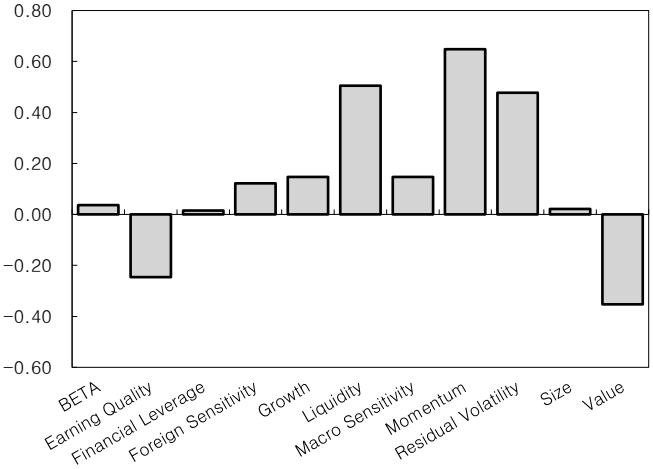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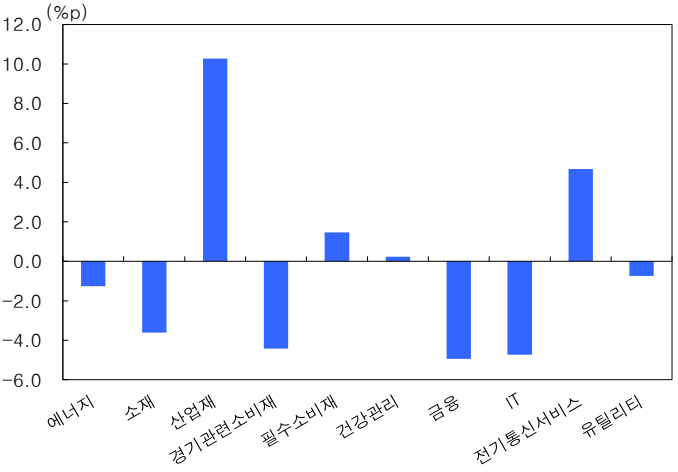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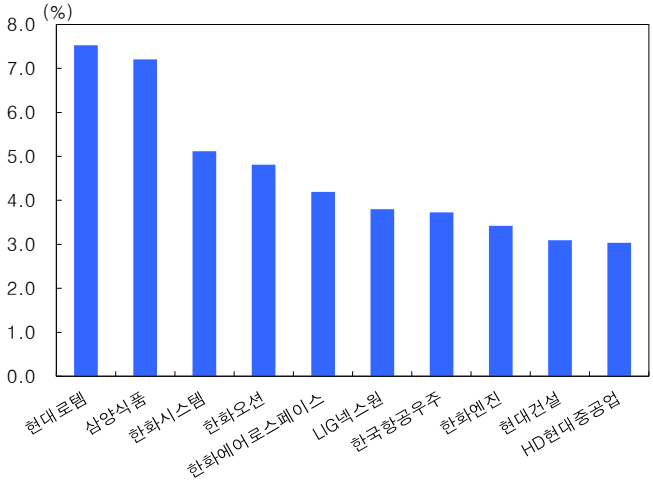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6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8.71%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감소하여, 5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금융', '건강관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5월말 기준으로는 '현대건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한화오션'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eastspring investments